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의 갈등과 대처행동 및 심리적 적응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Elderly with Coresiding Adult Children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 崔 丞 媛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徐 炳 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Master: Choi, Seung Won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Prof.: Seo, Byong Sook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 of conflict of elderly coresiding adult children and to find out what behaviors they choose to cope with conflicts. Also,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those coping behaviors affected elderly par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8 elderly parents coresiding with adult children in Seoul metropolitan area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tatistics such as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through SPSS/PC computer program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In general, elderly parents perceived low level of conflicts with their adult children. Elderly parents with bad health condition, no religion, lack of personal expenses, and low level of standard of living showed more conflicts. Each of four major coping behaviors was affected by different factors.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affecting elderly par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active problem solving activity.

I. 문제제기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가장 긴 관계중의 하나로 살아가는 동안 의존성과 독립성을 원만히 조정해야 하며,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규정된 상호의무와 가족의 결속에 기초한다. 19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지식의 축적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던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가부장적 권위를 갖고 중요한 문제의 의사결정이나 가족구성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노부모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부모가 기혼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본질도 변화하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배하는 가족의 대표자에서 자녀들로부터 보호받고 지배당하는 존재로 변화하였다(윤가현, 1991). 따라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불만,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대현·윤가현, 1989).

우리 나라의 연구결과에서도 노부모-기혼자녀 관계에서 애정적 결속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노부모-기혼자녀간의 심리적 만족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충선, 1990; 최정혜, 1992). 서구의 노인들이 겪는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친구의 죽음, 이사, 은퇴, 폐경, 이혼 등과 같이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적응을 요하는 인생사건들(life events, 소위 objective stress)보다도 가족관계, 건강, 경제문제와 같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요인(daily hassles, 소위 subjective stress)들에 의한 불만족이 노인들에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을 더 쉽게 유발한다고 하였다(Lazarus & DeLongis, 1983).

산업사회로 전환되기 이전에 노부모들은 사회적 지식의 축적체로서 권위를 갖고 가족 내에서도 권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그 역할이 점점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 자녀의 입장에서 노부모부양에 따른 부담에 관한 연구가 많

았으며, 노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의 갈등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 내 지위가 약화되고 역할이 축소된 노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를 대상으로 노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갈등과 대처행동,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이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모의 갈등

갈등의 사전적 의미는 '상반된 견해, 처지, 이해 등이 얽히어 모순을 이루는 복잡한 관계' 또는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상태'로 되어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갈등은 둘 내지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로 가족 내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가족원이 자신의 바램과 다른 사람의 욕구가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과정에서 태도나 가치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Galvin & Brommel, 1982). Scanzoni와 Polonko(1980)는 한 가족구성원이 상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한 보답을 원하는 경우 그는 먼저 상대가 원하는 보답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족역할, 감정 등의 교류를 상호성이라 할 때 상호성의 양과 질이 문제가 되며 가족구성원 일방이 상호성을 무시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갈등이 가치와 태도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볼 때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세대차이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노부모와 기혼자녀세대의 관계를 볼 때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인권존중을 강조하는 평등사상은 부모의 권위와 지배의 재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이효제, 1984). 그리고 노부모와 그 자녀들이 서로에 관해서 알고 있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염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서로

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공감하기는 어려우며(Arling, 1976), 기혼자녀들은 부모보다는 배우자나 자식들과 더 밀접함을 느끼고 있어 이러한 세대차이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Seelbach, 1978).

2. 노부모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

노인을 괴롭히는 것은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수입의 감소, 사회와 가족구성원들로부터의 고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대처하느냐의 문제이며(서혜경, 1990), 대처의 중요성은 어떤 가족이나 개인이 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예견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윤현희, 1994).

이러한 대처에 대해 Folkman과 Lazarus(1984)는 4가지 이론적 관점을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자아과정을 강조하는 심리적인 관점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평형을 되찾기 위해 반응하는 무의식적 방어체계가 대처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처를 개인의 인성 특성으로 간주하여 인성 특성의 결과로 정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의하여 대처행동이 결정된다는 상황적 관점으로, 이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서적 대처반응에 관심을 둔다. 네 번째는 대처행동이 개인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인지적·상호작용론적 관점이다.

Menaghan(1983)은 대처행동이란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을 감소시켜 개인의 적응을 돕는 것이라 했고, Lazarus등(1984)은 실제적 또는 예측되는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인지적, 행위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대처행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Billings와 Moos(1984)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과 같이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문제에 대한 개인의 평가나 관점을 변화시키는 방안,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정서적 긴장감을 관리하는 방안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이러한 방법이 상호보타적인 것이 아니며 동시에 연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Krause와 Tran(1989)은 지금까지 노인의 대처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처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만 초점을 두어 왔으나,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음을 볼 때, 이는 노인이 갈등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자원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

적응의 사전적 의미는 '적합하게 하다', '일치시키다' 또는 '순응시키다'이며, 우리가 무엇인가에 적응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켜 어떤 특정한 요구에 들어맞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서병숙, 1992).

원만한 노년기의 생활적응에 관하여 Havighurst(1972)는 첫째, 체력과 건강의 쇠퇴기에 대한 적응, 둘째, 은퇴와 감소된 수입에 대한 적응, 셋째,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적응, 넷째, 동년배 집단과 친근한 관계 유지, 다섯째, 사회적·시민적 의무의 감당, 여섯째 안락한 생활의 정돈 등을 들고 있다. 장진호(1985)는 노년기의 과업으로 첫째, 노인생활을 위한 적절한 준비, 둘째, 수입감소에 대한 적응, 셋째, 부부간의 상호이해와 배우자 사망시의 적응, 넷째, 자녀·손자녀들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 다섯째, 연로한 친척을 돌보아 주는 일, 여섯째, 적절한 여가선용의 방법, 일곱째,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 등을 들고 있다.

노인의 '생활 만족'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 행복감, 생활의 질 등 여러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Neugarten 등(1968)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자신의 목적 성취,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아가치를 느끼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노인 자신이 현재 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노부모가 생활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자녀와의 갈등,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조사도구 및 측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질문지이며, 그 내용은 기혼자녀와의 갈등,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혼자녀와의 갈등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와의 갈등은 최정혜(1992)에 의해 개발된 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정혜의 갈등 측정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을 참고로 하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의 갈등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다고 평가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Likert형 척도로 '그렇지 않다'에 1점, '그저 그렇다'에 2점, '그렇다'에 3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조사 결과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대처행동

노부모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의 측정척도는 윤현희(1994)의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조사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총 12문항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4개의 요인은 '신앙에 의지', '수동적 회피', '적극적 해결', '감정표출'이라고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그렇다'의 3점에 이르는 3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대처행동유형에 대한 행동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신앙에 의지'는 Cronbach's $\alpha = .86$, '수동적 회피'는 $\alpha = .68$, '적극적 해결'은 $\alpha = .70$, '감정표출'은 $\alpha = .61$ 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은 윤현희(1994)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에 이르는 3점 Likert형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 .82$ 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며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이다. 예비조사는 1998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1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본 연구자와 가정관리학을 전공한 면접원이 노인정, 노인복지관, 호별방문 등을 통해 노인을 직접 면접하여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총 23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지 못한 질문지와 부실기재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질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21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질문지의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배경변인 및 의사결정권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t-test와 ANOVA로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사후검증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와의 갈등,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여자노인이 72%, 남자노인이 28%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많았다. 연령은 50대가 8.3%, 60대가 40.8%, 70대가 37.1%, 80대 이상이 13.8%였으며, 평균 연령은 69.7세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기혼자녀와 동거한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모는 50대라 하더라도 연구에 포함시켰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50.5%, 없는 노인이 49.5%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조금 많았으나,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은 80.3%가 배우자가 있는 반면에 여자노인은 38.9%만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평균 4.08명이었으며, 건강상태는 78.9%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건강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는 주로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73.9%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수준은 평균 7.5년이었다. 소득이 없는 노인이 61.8%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재산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60.6%였다. 용돈은 평균 25.1만원이고 자녀가 용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46.3%였으며, 용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2.7%, 보통이 44.7%, 불만족이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부부와 살고 있는 경우가 63.4%, 장남외 아들과 살고 있는 경우가 24.5%로 아들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딸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12.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원해서 동거하는 경우가 46.5%, 노부모가 원해서 동거하는 경우가 41.8%로 나타났으며, 동거기간은 평균 10.8년으로 나타났다.

외부사회에 대한 가족대표가 노부모인 경우는 52.8%, 자녀인 경우는 44%였으며, 생활비 부담은 자녀가 하는 경우가 58.5%, 노부모가 하는 경우가 18.4%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고,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2.1%로 가장 많았다.

2.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따라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에 관한 문항은 3점 만점에 평균 1.74점으로 나타나 노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갈등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노부모들이 기혼자녀에게 기대를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는 노부모가 기혼자녀와의 갈등을 심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하려는 경향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노부모가 가장 높게 지각한 갈등은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 주어서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다”(M=2.05)였으며, “자녀의 생각은 나와 다른 면이 많아 속이 상한다”(M=1.96),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서 섭섭하다”(M=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낮게 지각한 갈등은 “독립해서 살 능력이 없어서 괴롭다”(M=1.50),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묻지 않아 섭섭하다”(M=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며, 가치관 문제, 재정적 문제 순으로 갈등을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김미혜, 1996; 최정혜, 1992)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

변 인	구 분	빈 도 (명)	자 녀 와 의 갈 등		
			평 균	F, t	D
성 별	남	59	1.70	-70	
	여	156	1.76		
연 령	50대	18	1.67	.58	
	60대	88	1.72		
	70대	80	1.80		
	80대이상	29	1.69		
배우자 유 무	있 다	107	1.72	-.52	
	없 다	108	1.76		
건 강	나쁨	45	2.03	15.62***	A
	보통	81	1.78		B
	좋음	89	1.55		C
종 교 유 무	있 다	158	1.70	-2.39*	
	없 다	54	1.89		
교 육 수 준	무학	28	1.83	.75	
	1 - 6년	82	1.74		
	7 - 9년	41	1.81		
	10-12년	43	1.72		
	13-16년	17	1.60		
용 돈 만족도	불만족	48	2.16	34.84***	A
	보통	96	1.75		B
	만족	70	1.47		C
동 거 자 녀	아 들	180	1.75	.62	
	딸	20	1.68		
가 족 대 표	노부모	107	1.71	.43	
	자녀	88	1.78		
	각각 및 공동	7	1.73		
생활비 부 담	노부모	40	1.73	.10	
	자녀	127	1.76		
	공동	47	1.72		
생 활 수 준	상	41	1.62	6.02**	A
	중	141	1.73		A
	하	19	2.08		B

*p<.05 **p<.01 ***<.001

관련변인에 따라서는 건강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을 보면,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의 경우 평균점수가 2.03, 보통집단의 경우 1.78, 좋은 집단의 경우 1.55로 건강이 나쁜 집단이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 의존감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신일진·김태현, 1991; 최정혜, 1992)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며, 노부모의 건강이 나빠지면 기

혼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밀의 감정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Barnett, 1983; Mindel & Wright, 1982)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유무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은 종교가 없는 집단이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노년기에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각종 상실감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고 한 연구결과(Harris & Cole, 1980)나 종교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노인에 비해 소외정도가 낮았다고 한 연구결과(박의련·유영주, 1989)를 지지하는 것으로 종교가 노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용돈 만족도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은 용돈에 불만족한 집단이 2.16, 보통인 집단이 1.75, 만족한 집단이 1.47로 나타나 용돈에 만족하는 집단이 갈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은 노부모가 자신의 생활 수준이 '하'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상'이나 '중'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제수준이 노후의 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용돈액수나 소득과 같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경제상태보다는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백근영, 1994; 최정혜, 1992)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3. 관련변인에 따른 대처행동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따라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표 2〉).

성별에 따른 대처행동은 '신앙에 의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노부모다는 노모가 신앙에 많이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모가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82.1%)이 노부가 갖고 있는 비율(55.9%)보다 훨씬 높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 신앙에 의지하는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윤가현, 1991; 최정혜, 199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령에 따른 대처행동은 '신앙에 의지'와 '적극적 해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50·60·70대인 집단보다 80대 이상인 집단이 신앙에 의지하는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80대 이상인 집단은 고령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적극적 해결은 50대와 60대인 집단이 70대나 80대인 집단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대처행동은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보다 적극적 해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갈등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방법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용돈만족도에 따른 대처행동은 용돈에 불만족한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신앙에 의지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적극적 해결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용돈에 불만족하거나 보통인 집단이 만족한 집단보다 감정표출을 많이 하였다.

가족 대표에 따른 대처행동은 가족 대표가 노부모인 집단이 자녀인 집단보다 적극적 해결을 많이 하였다. 여기서 가족 대표가 노부모라는 것은 노부모의 가정내 지위가 그만큼 높다고 하는 것이므로 갈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 사료된다.

생활비 부담에 따른 대처행동은 수동적 회피, 적극적 해결, 감정표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생활비 부담을 공동으로 하는 집단이 노부모나 자녀가 하는 집단보다 수동적 회피를 많이 하였으며, 노부모나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집단이 자녀가 부담하는 집단보다 적극적 해결을 많이 하였다. 또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집단이 자녀가 부담하는 집단보다 감정표출을 많이 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대처행동은 생활수준이 중이나 하인 집단이 상인 집단보다 수동적 회피를 많이 하였다.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은 중이나 하인 집단보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적 회피를 덜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표 2〉 관련변인에 따른 대처행동

변인	구분	빈도 (명)	신앙에 의지			수동적 회피			적극적 해결			감정표출		
			평균	F, t	D	평균	F, t	D	평균	F, t	D	평균	F, t	D
성별	남	59	1.77			2.22			2.19			1.79		
	여	156	2.33	-4.79***		2.37	-1.58		2.25	-.54		1.74	.65	
연령	50대	18	2.59		A	2.46			2.58		A	1.65		
	60대	88	2.20		A	2.30	1.34		2.42	7.58***	A	1.81	1.15	
	70대	80	2.19	4.29**	A	2.39			2.08		B	1.74		
	80대이상	29	1.75		B	2.17			1.90		B	1.66		
배우자 유무	있다	107	2.11			2.27			2.33	1.88		1.85	3.08	
	없다	108	2.23	-1.13		2.39	-1.45		2.15			1.65		
건강	나쁨	45	2.14			2.28			2.17			1.77		
	보통	81	2.08	1.14		2.33	.18		2.23	.32		1.80	.85	
	좋음	89	2.27			2.35			2.28			1.70		
종교 유무	있다	158	2.52			2.37	1.17		2.30	1.86		1.73	-1.44	
	없다	54	1.16	18.71***		2.25			2.25			1.84		
교육수준	무학	28	1.84			2.35			1.80		A	1.63		
	1-6년	82	2.15			2.43			2.28		B	1.74		
	7-9년	41	2.37	1.83		2.27	1.65		2.29	3.92**	B	1.80	.94	
	10-12년	43	2.14			2.26			2.21		B	1.80		
	13-16년	17	2.22			2.06			2.56		B	1.87		
용돈만족도	불만족	48	2.43		A	2.31			2.38		A	1.82	A	
	보통	96	2.16	4.18*	AB	2.38	.48		2.28	3.20*	AB	1.82	4.80**	AC
	만족	70	2.00		B	2.29			2.07		B	1.61	B	
동거자녀	아들	187	2.13			2.33			2.23			1.74	-1.24	
	딸	24	2.45	-1.77		2.34	.75		2.27	-.28		1.88		
가족대표	노부모	114	2.49			2.91			2.75		A	2.16		
	자녀	93	2.58	.29		2.08	.24		2.20	5.09**	B	2.84	.80	
	각각 및 공동	7	1.85			2.85			2.31		AB	2.71		
생활비부담	노부모	40	2.03			2.39		A	2.40		A	1.85	AB	
	자녀	127	2.12	2.55		2.42	8.07***	A	2.10	5.86**	B	1.68	3.60*	A
	공동	47	2.38			2.03		B	2.45		A	1.86	B	
생활수준	상	40	2.13			2.07		A	2.26			1.79		
	중	152	2.18	.05		2.39	4.54*	B	2.25	.24		1.74	.20	
	하	19	2.19			2.41		B	2.13			1.79		

*p<.05 **p<.01 ***<.001

4. 관련변인에 따른 심리적 적응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따라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 적응은 연령, 건강,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와 60대인 집단이 70대와 80

대 이상인 집단보다 심리적 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결과(Blazer et al., 1991)와 일치한다.

건강에 따라서는 건강이 좋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나쁜 집단에 비해서 심리적 적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객관적인 건강상태가 생활만족을 좌우한다는 연구결과(박충선, 1990; 송주은, 1993; Husaini, 1991; Quinn, 1983)와

〈표 3〉 관련변인에 따른 심리적 적응

변 인	구 분	빈도(명)	심 리 적 적 응		
			평 균	F, t	D
성 별	남	59	2.21	-1.73	
	여	156	2.34		
연 령	50대	18	2.52	3.97**	A
	60대	88	2.39		A
	70대	80	2.20		B
	80대이상	29	2.16		B
배우자 유 무	있다	107	2.32	.36	
	없다	108	2.29		
건 강	나쁨	45	2.10	15.01***	A
	보통	81	2.19		A
	좋음	89	2.51		B
종 교 유 무	있다	158	2.40	5.17***	
	없다	54	2.02		
교 육 수 준	무학	28	2.15	1.96	
	1 - 6년	82	2.39		
	7 - 9년	41	2.18		
	10-12년	43	2.30		
	13-16년	17	2.33		
용 돈 만족도	불만족	48	2.22	1.17	
	보 통	96	2.31		
	만 족	70	2.36		
동 거 자 녀	아들	187	2.29	-.45	
	딸	24	2.34		
가 족 대 표	노부모	113	2.34	.67	
	자 녀	95	2.27		
	각각 및 공동	7	2.19		
생 활비 부 담	노부모	40	2.30	.96	
	자 녀	127	2.27		
	공 동	47	2.39		
생 활 수 준	상	41	2.37	1.13	
	중	141	2.30		
	하	19	2.16		

*p<.05 **p<.01 ***<.001

일치한다.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심리적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김수정, 1996; 박의

련·유영주, 1989)와 일치한다. 그렇지만 노인의 종교유무에 따라 생활만족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박충선, 1990; 정혜정·서병숙, 1997; 조옥희 등, 1991)도 있으므로 종교유무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자녀와의 갈등,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4〉의 자녀와의 갈등,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들이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노부모가 갈등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자녀와의 갈등,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자녀와의 갈등	신앙에 의지	수동적 회피	적극적 해결	감정표출
자녀와의 갈등					
신앙에 의지	-.04				
수동적 회피	.09	.09			
적극적 해결	.02	.29**	.11		
감정표출	.37**	-.01	-.19*	.05	
심리적 적응	-.32**	.26**	.00	.33**	-.20*

*p<.01 **<.001

상관관계분석 결과(〈표 4〉), 자녀와의 갈등과 감정표출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대처행동으로 감정표출을 많이 하였다. 또한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은 적극적 해결, 신앙에 의지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자녀와의 갈등, 감정표출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노부모가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적극적 해결을 많이 할수록, 신앙에 의지를 많이 할수록 심리적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대처행동으로 감정표출을 많이 할수록 심리적 적응 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기혼자녀간의 관계의 질이 높고 갈등이 적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들(김명자, 1982; 박충선, 1990; 신효식, 1993)과 일치하는 것이며, 대처행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해결이나 신앙에 의지는 효율적인 대처행동이고, 감정표출은 비효율적인 대처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갈등과 대처행동, 그리고 이러한 변인

첫째,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는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용돈에 불만족한 경우, 생활 수준이 '하'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정도가 높았다. 또한 노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정도가 낮았다.

둘째, 노부모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앙에 의지'는 성별, 연령, 용돈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노모인 경우, 연령이 50·60·70대인 경우, 용돈에 불만족한 경우에 신앙에 의지를 많이 하였다. '수동적 회피'는 생활비 부담,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생활비 부담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생활수준이 중이나 하인 경우에 수동적 회피를 많이 하였다. '적극적 해결'은 연령, 교육정도, 가족대표, 생활비 부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50대와 60대인 경우, 교육을 받은 경우, 가족 대표가 노부모인 경우, 생활비를 노부모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의사결정권이 노부모에게 있는 경우에 적극적 해결을 많이 하였다. '감정표출'은 용돈만족도, 생활비부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용돈에 불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감정표출을 많이 하였다.

셋째,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은 연령, 건강, 종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50대와 60대인 경우, 건강이 좋은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노부모나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심리적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와의 갈등,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이 많을수록 대처행동으로 감정표출을 많이 하였다. 또한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은 자녀와의 갈등이 적을수록, 대처행동으로 적극적 해결을 많이 할수록, 신앙에 의지를 많이 할수록 심리적 적응 정도가 높았고, 감정표출을 많이 할수록 심리적 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의 생활수준이나 용돈만족도가 높을수록 갈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객관적인 경제수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도도 중요하였으므로 노부모 스스로 자신의 생활수준이나 용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노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 적극적 해결과 같은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감정표출을 자제함으로써 심리적 적응 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해결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부딪힐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함께 해결방법의 모색에 필요한 정보나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도 요구되므로 노인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부모에게 있어서 건강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나 가정봉사원제도같은 각종 사회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노부모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가족관계, 경제문제, 건강문제가 노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물질적, 정서적인 노인부양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때 노인들은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족관계로 인한 갈등도 인지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은 더 과중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은 우선 경제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노부모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 노년기에 대한 이해, 갈등대처능력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0(3), 45-54.

김미혜(1996). 노후성격적응성향과 노인이 지각하는 기혼자녀와의 갈등관계 연구-장남부부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정(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의련·유영주(1989).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209-223.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한국여성개발원.

백근영(1994). 은퇴한 남자노인의 성격적응특성에 따른 노후적응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서혜경(1990). 노년여성과 남성의 내외통제성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0(2), 39-67.

송대현·윤가현(1989). 노년기의 고독감: I.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회지 9, 64-78.

- 송주은(1993).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녀와 동거하는 여자노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일진·김태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7-44.
-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가현(1991). 노년기의 고독감: IV.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 *한국노년학회지* 11(2), 179-190.
- 윤현희(1994). 남녀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서병숙(1997).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 및 세대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49-163.
- 조옥희·신효식·박옥임(1991). 홀로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15-130.
- 최정혜(1990).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변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19-134.
- _____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rling G.(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4), 757-768.
- Barnett, R. C. & Baruch, G.(1983). Adult daughters'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67-588.
- Billings, Andrew, G., & Moor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versity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Blazar, D., Burchett, B. Service, C. and George, K. (1991). The association of Age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An Epidemiologic Exploration,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s* 46(6), 210-215.
- Folkman, S., Lazarus, R. S., Pimley, S. & Novacek, J.(1984). Age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Process, *Psychology and Aging* 2, 171-184.
- Galvin, K. M. & Brommel, B. J. (1982). *Family Communication: the cohesion and change*. Scott Foresman and co.
- Harris, D. K. & Cole, W. E.(1980). *Sociology of Aging*. Houghton Mifflin Co.
- Havighurst, R. 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 Husaini, B. A., Moore, S. T., Castor, R. S., Nesor, W., Whitten - Srovall, R., Linn, J. G., and Griffin, D.(1991). Social Density, Stressors, and Depression: Gender Differences Among the Block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6(5), 236-242.
- Krause, N. & Tran, T. V. (1989). Stress and Religious involvemen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44, 58-70.
- Lazarus, R. S. & DeLongis, A. (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 38, 245-254.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Menaghan, E. G. (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actions: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71-385.
- Mindel, C. H. & Wright, R.(1982). Satisfaction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Journal of gerontology* 37, 102-121.
- Neugarten, Bernice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60-575.
- Scanzoni, J. & Polonko, K.(1980). A conceptual

- approach to explicit marital negoti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31-44.
- Seebach, W. C.(1987).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l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27(4), 69-78.
- Skolnick A. & Skolnick J. H.(1979),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4thed., N.Y.: Oxford University Press. 593-604.